

## 【인터뷰】

# 서울대 봉사모임 ‘십시오일밥’과 함께해요

## 1. ‘십시오일밥(十匙一밥)’이란 무엇인가요?

● 김호  
서울대 인문대학  
철학과 10학번

‘십시오일밥’은 대학생들이 강의와 강의 사이의 자투리 시간인 공강 시간에 학생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식권을 받아 그것을 취약 계층 학우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계조차 어려운 학우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식비 5만원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시간은 10시간. 10명의 대학생이 1시간씩 공강 시간을 심시일반(十匙一飯)하면 모두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양대에서 작은 규모로 진행되던 봉사활동이 2014년 9개 대학이 모여 본격적으로 ‘십시오일밥’으로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총 10여 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추어 봉사를 진행하지만 학생식당과 계약을 맺고 학생들이 봉사를 하면서 그 임금으로 식권을 기부한다는 취지는 모두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1,000,000여 장의 식권을 기부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2. 서울대 ‘십시오일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서울대 ‘십시오일밥’은 2015년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학우의 사연을 친구가 대신 올린 것이죠. 많은 학우와 졸업생선배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십시오일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예술계 복합동(74)에 있는 한화 푸디스트 '아름드리' 식당과 협업하여 '십시오일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 50명의 학우 분들이 공강 시간마다 식당에서 열심히 배식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타임으로 나누어서 봉사자마다 매주 1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에 여유로 바쁜 일정에도 봉사 시간은 꼭 지켜주시고 배식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심시일밥은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 미리 봉사자를 모집하고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봉사활동이지만 엄연히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일인 만큼 위생사항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시일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프렌즈나 페이스북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봉사자로 참여하신다면 더욱 좋겠네요.

### 3.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때, 그리고 힘들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봉사활동이지만 식당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일인 만큼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위생도 확실히 챙겨야 할 뿐더러 출석과 업무 숙련도도 꼼꼼히 다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봉사에 참여하신 학우 분들이 정말 책임의식도 뛰어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어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3학기 동안 550만 원어치의 식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배식봉사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학우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들이고 열정이 넘치는 분들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십시오일밥'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내는 봉사활동은 아닐지라도 가장 작고도 중요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불어 함께 봉사하는 학우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